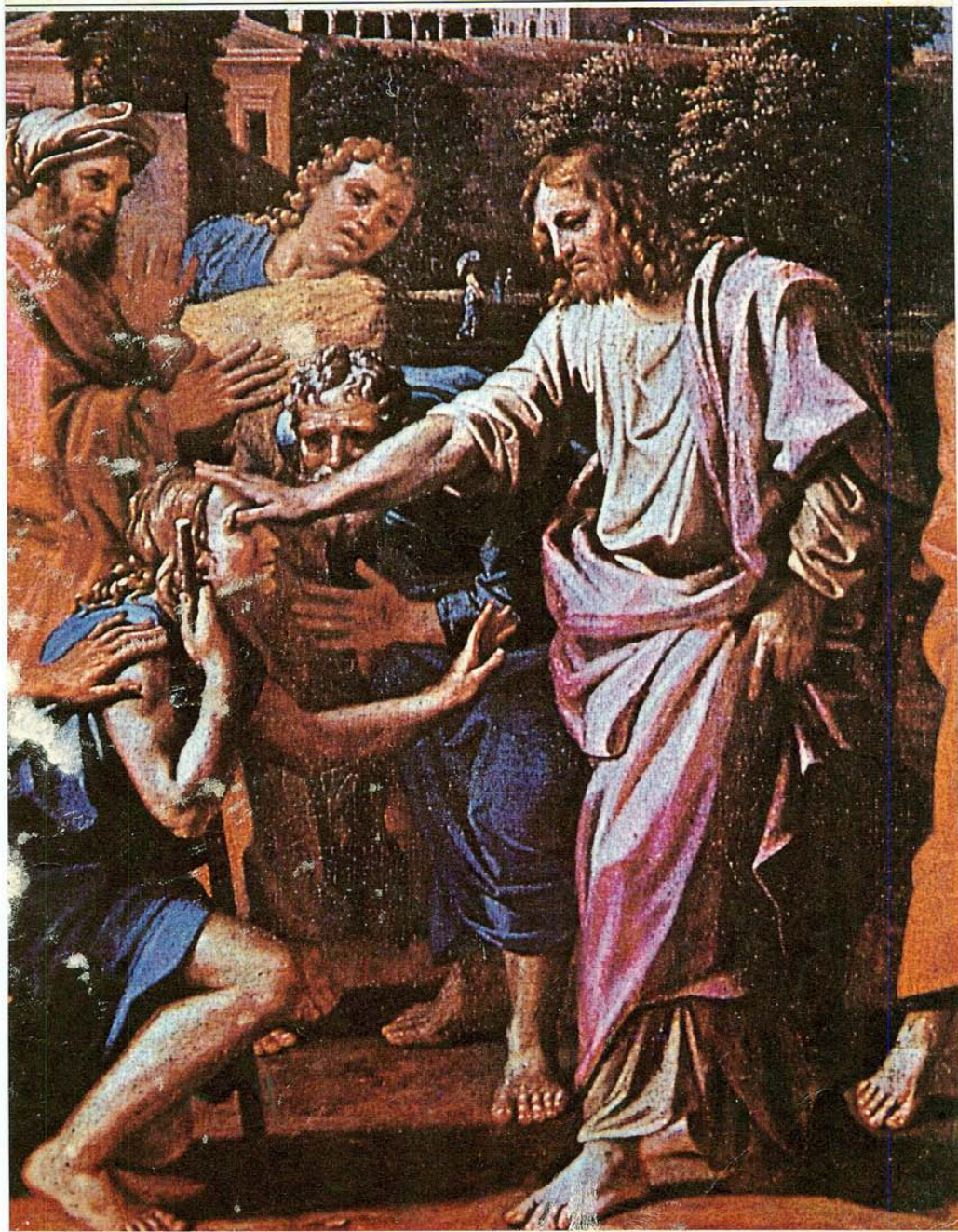


~



표지 설명: 소경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9: 27-31)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1593/94-1665)



9

17

39

성도의 벗 8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엘 앨튼 테니
매리온 지 톰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클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메이
조지 피리
에프 엘저오 부쉬

“배웠고”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

주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로버트 엘 백맨 장로..... 8

그물을 던짐.....데렉 딕슨.....14

질 의 응답토마스 피 스미스, 조지 디 듀란.....20

함께 나눔.....26

마음속의 생각이 중요함채니트 토머스.....28

킴블 대관장님이 병자 축복을 강조하심38

타인과 다른 것을 기뻐함산드라 스카우슨.....47

데이비드 오 맥케이하워드 보너.....50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패트 그래함.....52

친구가 친구에게줄린 메레디스.....54

꿀새의 몫케이 엘 하비.....56

지역 지도자 메시지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59

해외 소식61

지역 소식63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발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정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05호, 제18권 제8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상화인쇄주식회사 유진 수

© 198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배웠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가족의 유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을 크게 강조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경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과 혼자 사는 독신자가 자기 가족 단위 안에서 사랑과 조화를 키우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리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이 시도하고 있는 무서운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겨 낼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말한 물문경의 첫 구절을 다 읽기도 전에 부모의 직분에 관한 올바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나 니

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배웠고……”(니파이일서 1장)

자기 자녀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신성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에 이 말씀을 모든 성찬식에서 읽도록 부탁드립니다.

“대관장단에서는 부모가 자기 가족을 가르치고 강화시키는 으뜸되는 기회로서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족이 복음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도 월요일 밤에는 가정의 밤을 하며, 여기에는 복음 원리, 사랑, 조화에 관한 가르침과 기타 가족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지도자들에게 이 주제에 관하여 강력하게 강조하도록 부탁하는 까닭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또 한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일성도 가정은 인생의 폭풍우와 투쟁에 대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기도, 경전 공부, 가정에서의 복음 토론 및 활동, 가정의 밤, 가족 회의 그리고 함께 일하고 놀고, 서로 돕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눔으로써 영성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인내와 서로에 대한 친절과 용서와 복음 원리를 가정에서 적용할 때 영성이 자라게 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함께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여 복음 진리에 대해 전문가나 학자가 되는 곳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즐겼던 여러 가지 활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게임을 인도하거나, 신앙개조를 낭송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재능을 발표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거나,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었으며 우리에게 훌륭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가정의 밤과 기타 우리 가정에서 평일 활동을 계획할 때 총관리 역원이 승인한 다음 제언을 사려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활동을 계획할 때 가족이 함께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사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시간을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 대회 보고 및 교회 출판물을 읽고, 예언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을 공부하고, 교회 공과와 기타 교회에서 지명받은 것을 준비하고, 일지를 쓰고 기도하고 사색하며, 친척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들을 방문하고,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고, 고상한 음악을 감상하고, 가족 복음 공부 시간을 갖고, 가족 회의를 열고, 훌륭한 부부 관계를 수립하고, 어린이와 함께 독서하고, 계보를 탐구하며 4대 프로그램 및 가족 역사나 개인 역사를 작성하고, 교회 찬송가를 부르며, 고상한 문학 서적을 읽고, 문화 예술에 관한 소양을 키우고, 가정의 밤 공부와 활동을 계획하고 기타 가족 활동을 계획하고, 비회원과 우정을 쌓고, 이웃과 우정을 증진하고, 병자와 노인과 외로운 사람을 방문하고, 가족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활동에는 일요일에 하도록 제언된 활동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가정의 밤 교재에 있는 공과, 가족 게임, 문화 행사, 가족 봉사 사업, 가족과 함께 재능을 나누기, 가정 미화 사업, 소채원 경작, 일년치 필수품 재고 조사, 기타 식량 비축 사업, 가정 용품 생산 사업, 휴가 및 특별 활동 계획, 가족 회의, 신체 단련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 비회원 친구와의 우정 증진,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우리 가족: 복음 중심의 가정을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

가족 지도자는 이런 제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현명하고 영감에 찬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신 성인, 부부, 부모 및 자녀들이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로 인하여 생긴 많은 시간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는 가족이 의로운 생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또한 서로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요일에는 예배드리고 배우고 토론하고 의로운 목적과 활동을 수행하며, 월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가족 활동, 토론 또는 기타 의로운 활동을 하는 이 시간은 매주 가족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모두 영적으로 잘 균형잡힌 가족 단합 증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적합할지라도 그것이 모두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 니파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이서 25 : 26) 만일 모든 사람이 주님과 그의 가르침이 정말로 훌륭한 인도하심의 근원이며, 위대한 올바른 모범의 근원이며, 위대한 도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각 사람의 내적인 힘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요한 활동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요한 활동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잘 때, 또는 식사 시간에 식탁에 둘러앉을 때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족이 모두 열렬하고 의롭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좀더 단합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애쓸 때, 또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귀기울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입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으로부터 가슴으로 느끼는 정직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 단위로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복음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함께 그것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은 무지와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권장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행복해지며 가족이 주님과 그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다스리는 수단의 하나인 가족 회의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라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도하에—그들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가족 회의에서 가족 문제와 가족 재정에 관하여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며,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은 “이 모임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잘듣는 분위기와 정직한 대화와 다른 사람의 견해와 느낌을 존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역사와 우리 생활에서 있었던 거룩한 경험에 관한 일, 곧 응답 받은 기도, 주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일, 우리를 위한 의식, 우리 인생의 특별한 시간과 사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다시 간청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가족과 토론하면서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개인 역사와
우리 생활에서 있었던
거룩한 경험에 관한 일,
곧 응답 받은 기도,
주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일, 우리를 위한 의식,
우리 인생의
특별한 시간과
사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다시
간청합니다.

이런 기록에서 적절한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전과 우리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얻은 영감과 우리 조상이 얻은 영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좋은 교육 수단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일지와 기록을 작성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또한 모든 세대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영감을 주는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 모임과 회의에서 선교 사업, 계보 사업, 복지 사업 등과 같이 중요한 가족 활동에 관하여 토론하기를 권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열망하도록 교육시키고 나중에 건강과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면 부모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활동의 위대한 가치에 대하여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교성 15:6)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계속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복음이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고 퍼지며 더 많은 나라로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을 따르다면 과거에 예언자들께서 약속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실하게 이 방법을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내려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만일 이스라엘인이 선지자 모세의 현명한 가르침을 따랐다면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반항적인 행위로 인하여 끌려간 곳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6-7)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변명을 듣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과를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애들은 학교 숙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애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는 특별한 텔레비전 쇼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우리는 매우 약하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데도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우리는 이런 성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보다 저희는 굶어 얼터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시편 20:7-8)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의로운 가정 생활과 활동, 가정에서 행해지는 영감에 의한 복음 진리에 대한 교육, 부모의 현명한 인도, 아버지의 관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상의하는 일,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며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도전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 여러분,
만일
자녀가
복음 진리를
배우기 바라며,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원하며
그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결속되기
원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들에 대한 모든
모든
말과
행동으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는 계속해서 노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개개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 되게 합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부모들에게 잘 훈계하였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로새서 3 : 21)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든 부모와 지도자와 교사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비결을 계시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잔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성 121 : 41—42)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제일 처음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만일 자녀가 복음 진리를 배우기 바라며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원하며 그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결속되기 원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들에 대한 모든 말과 행동으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사랑을 위하여, 그들 또는 그중에 한두 사람이 아무리 방종하더라도 그들에게 말할 때 노한 가운데 가혹하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역할은 축복사, 지도자, 모범, 친한 벗, 교사, 영웅, 친구,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필요하면 함께 우십시오……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하십시오. 체적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정당한 논리와 설득과 꾸밈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만일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아들딸을 얻을 수 없다면……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장로들의 설교집, 조셉 에프스미스, 1911년 10월 17일)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 34)

이러한 사랑의 영이 우리의 동기와 행동을 인도할 때 베드로가 말한 축복이 부모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 : 8)

우리가 그들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우리의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교성 121 : 44) 얹으로써 부모로서 부족한 점을 관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엡 4 : 32)하는 가정, 가족 모임과 토론과 회의를 갖는 가정, 사랑이 가장 큰 동기가 되어 기도하고 일하고 노는 가정,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고 애쓰며 그 외에 주님의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가정에는 강력한 영성과 단결력이 생길

것이며 이것은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람과 가족이 이런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발전을 다시 평가해 보시도록 간절히 권고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악에 대항하는 방패와 피난처가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현세와 영원을 두고 크고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가정의 밤이나 가족이 함께 하는 데 따르는 축복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2. 이 말씀에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만한 성구나 인용 말씀이 있는가?

3. 이 말씀에서 권고한 일요일 활동과 월요일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토론한다. 왜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가?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융통성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한가?

4.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가족 토론과 활동을 좀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하여 가족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5.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이 토론이 더 훌륭하게 되겠는가? 가족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주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일 제일 정교회

너 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청소년들이 소년과 어른의 중간 시기인 어려운 십대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아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육체적인 성장에 관하여 고민하고, 자신의 장애, 공부, 여자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과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때로는 회의를 느낍니다. 독립하려고 하면서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면서도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그에게 명령하는 세력……가족, 동료, 교사, 지도자, 모든 사람이……그를 끌어당깁니다. 또한 그들은 시간은 영원하다는 생각 때문에 혼선을 빚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부모의 손길에 맡기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어깨에 맡기셨습니다. 이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

신 훌륭한 계사에서 어린 아이들은 무죄하며 “저희 아비에게는……더욱 큰 일을 요구하도록 하였”(교성 29:48)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어떤 큰 일을 요구하십니까? 본부 청남 회장으로서는 특히 청남 회원들의 아버지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심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주님이 주신 막중한 책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68편 25절부터 28절 사이에서 가장의 책임에 관하여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1. 자녀가 복음의 첫째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2. 아버지는 자녀가 만 8세에 침례 받고 성신이 동반하시도록 “안수”를 받게 해야 한다.
3. 우리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한다. 기도하고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함.

주님께서 이것이 “시온의 주민에게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부모가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시기인 그들이 어릴 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책임이 교회, 학교, 지역 사회, 동료에게 부과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하

십시오.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에 의한 거룩한 개념에 따라서 그들에게 결혼과 성과 출산을 가르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흔히 젊은이들은 이런 주제에 관하여 자기 친구로부터 배웁니다.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임상 강의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나는 자기 아들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이

신뢰와 확신으로 맺어져 훌륭하게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그는 정원 일을 하면서 아들이 담너머로 친구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도 자라면서 모두 걱정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왜 네 아버지에게 여쭙어 보지 않니?”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너는 네 아버지와 그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대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깨뜨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부모의 손길에 맡기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어깨에 맡기셨습니다. 이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오! 오늘날의 부모들이
아담과 이브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이들과 접견할 때 만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와 대화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을 갈아먹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오! 오늘날의 부모들이 아담과 이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전에서 는 그들이 “아들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모세서 5:12) 했다고 말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들은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순간을 만들어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며 자녀와 가깝게 지내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소년단 독수리상 시상 만찬회에서 그 상을 받은 훌륭한 소년이 헌신적인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의 소년단 단장이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우리 단장은 공로 배지 보다는 다른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이킹할 때는 바위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모닥불 가에 둘러앉았을 때는 니파이에 관하여, 별을 보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우리를 한 사람씩 요셉 스미스처럼 혼자 기도하러 가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단장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우리 아버지이며 나는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산 속을 걸으면서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여로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들이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심

우리 구세주께서는 모범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모든 말일성도 가족은 의롭게 신권을 행사하고 가족이 따를 의로운 모범을 보이며 신앙과 헌신을 통하여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시켜 주는 가정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는 모범을 통하여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높은 표준과 확고한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설교가 아니고 생활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려면 그분에 대한 신앙을 보이십시오. 기도를 가르치려면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덕스럽고 자제하며 훌륭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어린이는 12세나 14세가 되어 정말로 종교적으로 자각하는 시기가 올 때 그들의 영혼을 휘젓는 의심과 질문과 열망에 대한 무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55년 4월, 27페이지)

여러분의 생활에 주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자녀에게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주었습니까? 최근에 그들과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최근에 자녀에게 어떻게 간증을 전했습니까?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복음의 영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까?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누구나 자기 가족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들이 자녀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을 인도해야 합니다. 미합중국 연합 통신사에서 연재로 글을 쓴 존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겨나는 분명한 일련의 규정이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이 된다.”

우리 젊은이들은 표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과 굳건한 닻과 지켜야 할 한계와 규칙과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며 진심으로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고심하는 나머지 사실상 한 가족으로서 베풀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심

캔사스주의 1만 명의 고등 학생에게 그들이 부모에게 묻고 싶은 질문과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80퍼센트가 “저를 사랑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은 “만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래도 저를 자녀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관계와 그의 자녀로서 그



들의 신성한 잠재 능력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능력과 이해심을 활용하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여러분과 단합하고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아들들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을 위해 아무리 그들이 고집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녀들과 말할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식으로 거칠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필요한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달래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

십시오. 꾸중하지 마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으로부터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를 듣거나 폭력을 쓰지 마시고 정당한 이유와 설득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토론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자녀들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여러분이 이들을 바로잡을 길이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복음 교리, 285페이지)

그는 아버지들이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심

1976년 4월 연차 대회 신권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월터 맥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소년들에게는 링킨이나 워싱턴 같은 영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소년들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솟아나는 힘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들은 그들과 길에서 만나고, 소풍을 가서 함께 야영도 하며, 매일 일상 생활을 통해 개인적으로 묻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소년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45페이지)

복음의 기준에서 아버지가 바로 그런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년들이 아버지 옆에 서서 농장에서 조력자로서 함께 일하거나 거 래할 때 견습생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 사회의 소년들은 대개 농장이나 사람들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아침 일찍 공장이나 회사로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수많은 소년들이 남자의 역할에 대한 모범을 보지 못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아버지가 가정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하는 어머니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과 개인적인 관심과 소년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에 대한 상담과 성인 남자 가족이나 워드 회원들과 함께 일하거나 노는 기회 등은 모두 소년이 남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영원한 영향력을 아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실 경우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그들에게 풍요롭고 충만한 생활을 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와 함께 어울리십시오.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과 자기 개선, 선교 사업과 신전 결혼과 흥미있는 사업과 직업 등과 같은 가치있는 목표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 주십시오.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인도해 주고 곁에 있어 주며 그들의 활동을 도와 주고 그들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캠핑도 가고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기도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동시에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가 기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큰 힘은 반항적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한 엘마의 기도에서 훌륭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알릴 뜻으로 이곳에 왔음에, 주님의 종의 간구가 저의 신앙에 따라 성취되리니라.”(모 27 : 14)

아버지로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열렬하기 바랍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역대상 29 : 19)

아버지의 직분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직책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역할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사, 지도자, 모범, 친한 벗, 교사, 영웅, 친구,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들에게 굉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보상도 굉장합니다. 우리 자녀가 성장하며 복음에 대한 굳건한 간증을 갖고, 신전에서 결혼하며,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자기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 키우고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책임을 완수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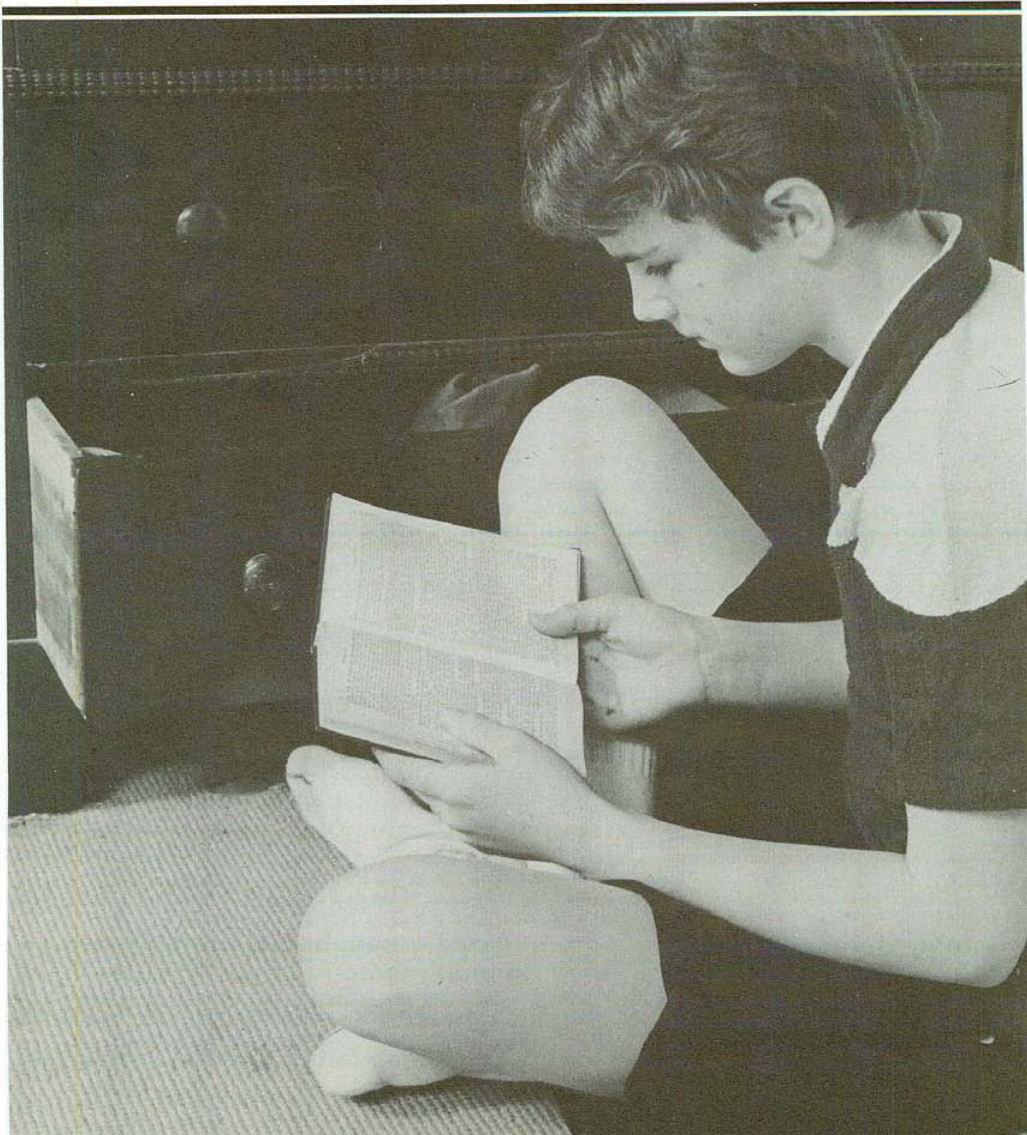


“소년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그물을 던짐

데렉 디슨

금요일 저녁, 우리는 지부장단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부 서기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비활동 회원 명단이 우리 기록부에 없다면 우리 보고서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일부 가정은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근처에도 와 본 적이 없었으며 교회에 오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우리 보좌들이 그 문제에 관하여 지부 서기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면서 내가 자랑하던 가정과 우리 가족의 강박했던 태도와 비활동 등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열 살짜리 소년이던 나는 어느 날 호기심으로 부모의 침실 바닥에 앉아서 아버지의 옷장의 맨 밑 설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주 오래 된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검정색 표지에 각 페이지마다 두 난으로 인쇄되어 있었으며 성경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가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페이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중에 몇 구절은 붉은 색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표시된 몇 구절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구절이 특히 내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레이맨인은 머리털을 깎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을 뿐 벌거벗었으며, 활, 화살, 돌 투석기 등을 지녔고,

“레이맨인의 피부는……레이맨인들의 조상들에게 저주가 내릴 때 주어진 표적대로 어두웠으니,”(엘마서 3:5-6)

나는 어느날

호기심으로

부모의 침실 바닥에 앉아서
아버지의 옷장의 맨 밑 설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디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이야! 이 절은 굉장한 힘을 갖고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서 몇 구절을 더 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책을 다시 조심스럽게 설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12년 동안 그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황량하고 어두운 시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으며 연료는 부족했고 부모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방치해 둔 어린이들 사이에는 죄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과일 학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한 늙은 선생님들이 복직했으며 학생들은 저녁 늦게 빈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에 사용했던 그릇을 씻고 때로는 직접 먹을 것을 만들기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외로운 시기였으며 전쟁의 혼란 가운데 부모와 자녀는 제각기 단절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병에 걸려서 14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약혼했습니다. 직장은 없었으나 이 세상에는 내가 일할 곳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확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암흑에 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소에 계셨습니다. 나는 커다란 이층 침실에서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은 악성 녹막염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는 이따금 집에 오셨읍니다. 그는 퇴근 후의 남은 시간은 요양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창백하고 조용한 성격에 좀처럼 웃지 않았읍니다.

나는 독서하고 산책하며 병원에 있는 여러 친구에게 긴 편지를 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읍니다. 그 외에는 매일 매일이 공허했으며 내 영혼은 굶주려 있었읍니다. 4월 어느 날 오후, 현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보았다니 검정색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쓴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있었읍니다.

“딕슨씨입니까?”

“그렇습니다.”

“헨리 윌리엄 딕슨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직장에 계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읍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친의 교회에서 온 장로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기록부를 보다가 부친의 이름을 보았으며 오랫동안 봐옵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지내시는지와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지금 별로 잘 지내시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상하군요. 내가 알기에 우리 아버지는 지난 21년 동안 아무 교회에도 나가시지 않았읍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읍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부친께서는 우리 교회의 집사이시며 오랫동안 교회에 안나오셨지만 여전히 우스 교회 회원이십니다. 부친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었읍니다.”

“부친의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상당한 호기심이 생기는군요.”

“오늘 오후에는 단 약속이 있으니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잉글랜드 버밍엄 헨즈위스 부스가 23번지에 있는 낡은 붉은 타일로 된 건물의 몹시 추운 부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첫번째 토론—신회에 관한—을 배웠읍니다. 그 토론이 끝나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소책자를 받았읍니다. 나는 그 책자를 집에 가져 가서 내 형의 침대에 맡아 두었읍니다. 그는 그 책자를 열심히 읽고는 다시 읽으려고 보관해 두는 것이었읍니다.

두번째로 부스가에 갔을 때,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으로 대화하는 동안에 말을 더듬거렸으며 손바닥에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해졌읍니다. 나는 또 한 권의 소책자를 집으로 가져 왔으며 그것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즉시 없어졌읍니다.

세번째 부스가에 갔을 때, 나는 물문경을 소개받았읍니다. 선교사가 그 신성한 책에 대하여 열렬한 간증을 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물문경을 한 권 주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돌려주었읍니다.

그는 놀라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굉장히 읽고 싶지만 우리 부친의 물문경을 빌리겠습니다.”

“부친께서 물문경을 갖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갖고 계실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내가 침묵을 깨뜨릴 때까지는 조용했읍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물문경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그러럼. 저녁 식사 후에 갖다 주마.”

그리고 정말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맨 아래 설함에서 그 낫익은 검정색 물문경을 꺼내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건네 주시면서 뚫어지게 내 눈을 쳐다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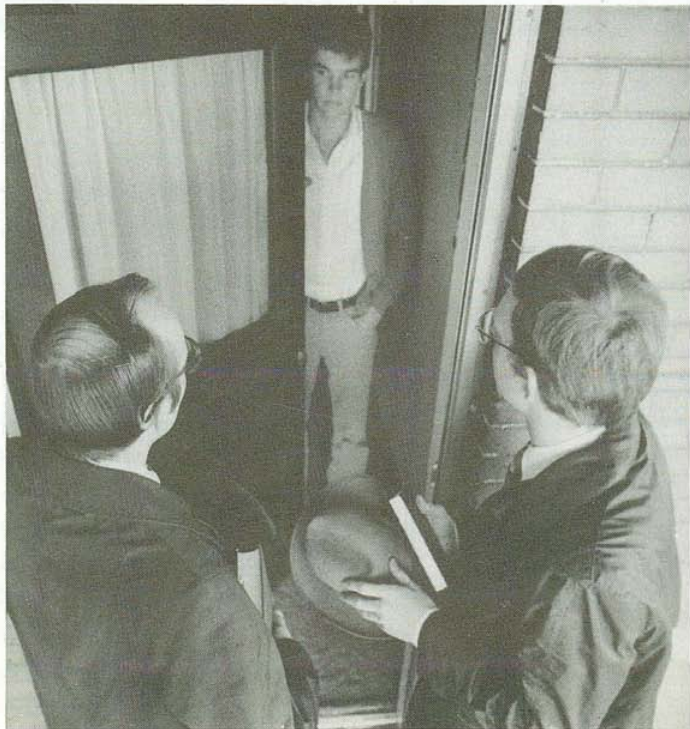
나는 침식도 잊고 그 책을 3일 동안에 다 읽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계시가 들어 있었으며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암흑의 그림자를 쫓아 내는 것 같은 훌륭한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는 동안 침실 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설함에서 같은 책을 꺼내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구절을 읽던 소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같이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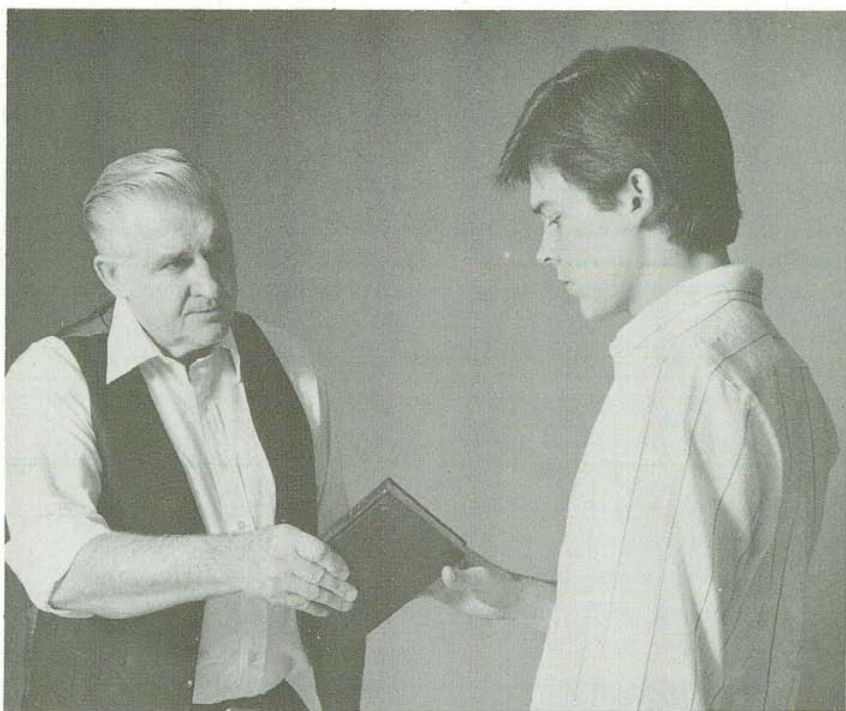
내가 그 책을 다 읽자 형이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약혼자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우리는 모두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과 함께 지방부 선교사로서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전할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양탄자를 적셨으며 우리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세 사람 모두 신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물문경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개종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를 방문하여 “왜 자녀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고 나서 창문 밖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이나 교회에 관하여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모두 언젠가는 권능이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개종하도록 끊임 없이 기도했단다. 나는 내 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몹시 원하고 있었지.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 교회에서 매우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20세기 초에 개종하셨으며 자녀인 우리를 복음

“아버지!

왜 자녀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운데에서 키우셨단다. 우리 어머니는 그 지역의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지. 그러나 그들이 1926년에 캘리포니아주로 이민가실 때 나는 네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하여 여기에 남았다. 네 어머니의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몹시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압력과 긴장으로 인하여 나는 곧 비활동 회원이 되고 교회와의 유대는 끊어졌단다. 나는 교회를 의심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기 시작했지. 내 양심은 항상 너희들을 염려하게 했으나 한번 대화가 단절되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 나는 너희들이 교회에 가입한 것이 정말 기쁘단다. 장로들도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비활동 회원인 나를 찾아왔다가 복음에 대하여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내 자녀들을 찾아 낸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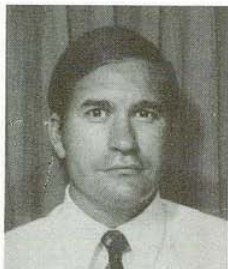
나는 이런 추억에서 되돌아와 예배당에서 지부장단 모임에 상정된 이 문제에 다시 주의를 돌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기록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같이 보이며 교회에서 활동화될 전망이 거의 없는 회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낚시질을 할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는 비활동화된 사람도 있고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으며 우리를 대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분명히 그물 던지는 일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낚지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하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 : 6)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엄숙하게 동의하는 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논의 사항으로 들어갔읍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토마스 피 스미스
마이애미 플로리다 스테이크,
마이애미 제2와드 감독

저의 직장 동료는
항상
여성을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일성도로서
그들이 여성에 대하여
합당한 존경심을 갖도록
영향을 줄 수 없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남자는 여성에게 어떤 존경심을 보여야 하는가? 둘째, 여성에 대한 행동과 대화 중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합당하게 되도록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수많은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직접 그의 생활에서 우리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그들을 대우하는 방법에 관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공평하게 여성을 대하시며 사랑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공평하게 가르치시며 자유롭게 대화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대범하고 공정하셨으며 거룩하신 부모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배려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성을 “남성의 장난감이나 노예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시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진리와 의와 명예와 사랑의 영원한 기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87페이지 참조)

여성을 남성에게 예측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단위 조직인 가족에 속해 있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이 교회 교리입니다. 여성은 남성없이, 남성은 여성없이 완전해질 수

없으며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여성을 본연의 그대로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남성의 영원한 동반자 이하인 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성에 대해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서는 동료들이 여성에 관하여 좋지 않고 불친절하고 추잡한 이야기 또는 참으로 어떤 종류든 불유쾌한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하게 경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이라면 그들을 해고시키거나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시키겠다고 경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독선적인 위치에 서서 거스르는 사람을 앞보고 당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가운데 복음에 의한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모범과 친절한 설득을 통한 방법입니다.

나 자신의 생활에서 있었던 적극적인 경험이. 모범의 힘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경찰관으로서 어떤 빈민 지역에 배속되었을 때 동료 경찰관

과 그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 사이에 오가는 난잡한 말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배운 표준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1) 나 자신이 그런 난잡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2)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곧 내가 있을 때에는 난잡한 말을 사용하는 일이 극히 적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스스로 내 표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내 모범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존경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의식중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의 유지인 어떤 주민이 화가 나서 내가 그에게 교통 위반 딱지를 댈 때 과도한 욕설과 폭력을 사용했다고 나를 고소했던 어느 날 받처럼 이와 같은 존경심을 가장 고맙게 여겨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내가 견책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고소하면서 내가 추잡한 말을 하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아는 동료 경찰관과 상관들은 그 고소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행동할 방법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르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면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범을 따를 마음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행동의 훌륭한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고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최소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스스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행동을 존경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행동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범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이것을 지닐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엄하게 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대학생 청중에게 연설하고 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던 유명한 연사가 보여 준 모범을 좋아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텔레비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에 관한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과 그들의 천박한 텔레비전 연속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연사는 그 말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학생이 여성과 그 텔레비전 연속물에 관하여 표현한 감정이 마음에 걸린

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판에 박힌 부정확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남성들에게도 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판을 가하기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나쁜 버릇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친절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청중 가운데 아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찬성의 물결이 청중을 감쌌으며 그 연사로부터 그 젊은이는 자신이 지적받았으나 감정을 상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의 토론은 매우 순조롭고 솔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행한다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닌 것같이 보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길을 택함으로써 우리가 불평과 적개심에 찬 설교로 직장 동료나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들이 우리의 느낌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모범을 통하여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려면 인내심과 참을성과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조지 디 듀란, 지역 대표

교회 신권 계보과

책임자인 동시에 여덟 자녀의 아버지

가장은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켄터키주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가족 활동과 교회 활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직면했음

니다. 켄터키 경마 대회가 곧 열리게 되어 있었으며 우리 가족은 몇 주 동안 그것을 보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 큰 행사가 있기 3일 전에 렉싱턴 스테이크 대회 계획이 한 주일 앞당겨져서 토요일 역원회가 바로 그 경마일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선교부장으로 서 주중에 방문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그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나는 대화하는 가운데 그 지도자에게 우리의 사전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의견을 물었읍니다. 그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리고는 더 말씀이 없었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읍니까?

교회 일로 때때로 가장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은 올바른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계획하고 위임함으로써 교회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정리할 수 있읍니다.

교회 부름을 행하느라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현신의 표절로 생각하는 가장들도 있읍니다. 때로는 그것이 현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단지 집에 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

다. 어떤 가정은 자기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집을 떠난 활동에서 더 적합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이 “헌신”을 가장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을 아내에게만 맡겨 놓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집을 떠나서 교회 직책을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보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충실한 가장도 때로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가족의 가정의 불로 따뜻해졌으므로 그의 형제 자매들의 가슴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마찬가지로 주님과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을 받습니다. 교회 사업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집을 떠나서 한없이 시간을 들여 행하는 교회 활동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내 견해로는 교회의 계획 모임과 역원 모임 가운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모임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 교회 지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지도자로서 교회 모임을 인도할 때 시간을 엄수합니까?”

나는 “예, 항상 정각에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그렇지만 시간을 엄수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정각에 시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모임을 정시에 시작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정시에 끝내십니까?”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모임을 끝내고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끝마치는 시간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시작 시간을 등한시하는 사람과 똑같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소비한 시간의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라고 말하며 변명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을 사용해서 양심을 마비시켜서는 안됩니다.

나는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의 여덟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선교부장으로 부르시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선교부장으로서 헌신하겠지만 아버지로서 두 배로 헌신해야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나의 첫번째 중요한 과제는 우리 앞뜰에 자라고 있는 큰 나뭇 가지에 굵은 밧줄을 매어 그네를 달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네가 생기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즉시 이웃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몇 개월 후에 우리는 선교부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선교부장은 모두 자기 선교부에서 그때까지 실시했던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 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

문을 받았습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그네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그네를 설명하고 나의 중요한 목적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그 그네는 이런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내가 한 일을 지지했습니다.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교회 일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유원지에 자주 갔습니다. 나는 단지 얼굴에 미소를 띄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과자를 먹으면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너는 선교부장이야. 사무실로 가야 해.” 그러면 나는 다시 미소를 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교회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자녀와 아내가 함께 있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오늘 밤에는 내 개인 일지에 오늘 여섯 시간 동안 훌륭한 교회 일을 했다고 쓸 수 있게 될거야. 그리고 나는 과자를 먹으면서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대로 나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 일을 안하고 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두 가지 다하는 것……두 가지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0분 동안 씨름을 할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후에 종이 비행기 한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었으며 하루 종일 직장에도 나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마음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에 나는 어떤 일을 끝내기 위하여 저녁 늦게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기 전에 불을 끄려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고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하루도 더 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단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내 온 영혼을 쏟고 주님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제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끝내기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응답이 바로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단 세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최선을 다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일 사이에 구체적인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상기했으며 몇 년 전에 켄터키주에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주신……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라는 충고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한 가지 과실은 항상 다른 것을 제쳐 두고 한 가지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

함께 나눔

첫 간증

캔디 비 스튜어트 머기

내가 침례받고 처음으로 상호부조회에 참석했을 때 그 공과는 영적인 생활 공과였으며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사는 그 공과를 끝내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간증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 번 금식 간증회에 참석한 적이 있으나 그때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일어나서 간증했으나 거의 한 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다. 내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내 가슴은 너무 심하게 쿵쿵거리며 그 소리가 교실 전체에 다 들릴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가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내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는 음성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회원이 된 지 몇 주일이 지났으나 내가 거기에 서서 간증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다. 그러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들 모두에게 사랑을 느꼈습다. 내 목소리는 몹시 떨렸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한 자매가 일어나서 감동하여 목이 메어 아마 자기가 그곳에서 가장 오래 된 회원인 동시에 손님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오랫동안 간증을 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새로운 자매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아 간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그 영은 우리 모두를 감싸는 구름 같았습니다. 그날 거기에 있던 자매들은 모두 간증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뜻깊게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경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수년 동안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

단순한 진리를 배움

패티 진 앵거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으며 내 목구멍 안에 딱딱한 멍울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종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되면서도 교회 직책을 맡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니? 대학 1학년생에게 훨씬 더 매력있는 교회 직책이 수없이 많이 있을텐데, 이 부름에 어떤 영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열의가 있는 척하고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성별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그 부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축복 말씀에 그 해답이 있었으며 성령이 그 해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대는 주님의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울 수 없었던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저의 마음속의 교만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그분이 저에게 맡기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저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

여섯 접시

루앤 브라운, 배러트

오늘 밤 저녁 식탁에 놓인 접시는 여섯 개밖에 안되며 앞으로 2년 동안 그 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형이 떠나면 다섯 개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 식탁에 다시 7개의 접시를 놓으려면 3년 반이 걸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집을 떠나는데 선교 사업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의 합당성과 봉사하려는 열의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탁은 텅 빈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부모를 떠날 때 우리가 필멸의 상태로 들어서는 것이 발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탄생은 그분에 대한 기억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생각할 틈도 만들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분들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선교사들과 예언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이 보다 충만해지기 위해 나의 식탁에 여섯 개의 접시를 놓을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마음속의 생각이 중요함



재니트 토머스

피터 제프슨은 그의 연료 탱크에서 휘발유 펌프 호스를 빼내고는 손목을 재빨리 돌려서 탱크의 뚜껑을 잠갔다. 때는 토요일 저녁이었으며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연료를 채우려고 멈춘 것이었다. 아직도 그의 머리 속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에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피터 자신도 몇 주 후에는 지원서를 내려던 참이었다.

피터가 교차점을 가로질러 아이다호주의 보이즈로 가는 고속 간선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그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돌로 그의 차의 앞유리가 깨져서 도로에 산산이 흩어졌다. 그와 동시에 그의 차 뒤에 달린 엔진 바로 앞에 있는 가득 찬 연료 탱크가 폭발했다.

“휘발유가 엔진 뚜껑 위로 튀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바로 내 앞에 끼었

어제 나와 자동차 안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이 붙고 자동차는 폭발하여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나가던 몇몇 사람이 사고를 보고는 즉시 멈추었습니다. 세 남자가 내 차에 다가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이 자동차 높이보다 두 배나 더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으로 그들의 코트를 던져 불꽃을 덮은 뒤에야 내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내 손을 잡고는 망가진 차에서 나를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나를 여러 번 바닥에 깔린 뒤에야 겨우 내 몸에 붙은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피터는 그날 밤 테이트하러 나가면서 자기 형의 두꺼운 영국제 스웨터를 빌어 입었습니다. 그는 그 스웨터에 덮여 있던 몸통과 팔부터 손목까지만 빼고 전신 화상을 입었다. 그는 그 스웨터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965년에 피터는 고향인 아이다호주의 보이즈에 살면서 많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생긴 날 그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병원에 도착하자 젊은 의사는 최선을 다해 나를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화상으로 인해 정상시의 두 배 가까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누워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는 내게서 살아 있다는 표식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

습니다. 그는 내게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시이트로 덮어 응급실의 입구로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칸막이 침대 안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언젠간 간호원이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막 내 침대 옆을 지나갈 때 내 팔이 시이트 밑에서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 간호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재를 다 모으고 나를 다시 증환 자실로 옮겼습니다.”

7주일 동안 무서운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터는 살 가망이 없었다. 간호원과 의사들이 교대로 곁에서 보살펴 주었다. 차츰 피터는 조금씩 의식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는 나라의 환상과 같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구름에 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사가 어머니에게 ‘피터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 의사를 때려 주고 싶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썼던 것이 기억나지만 그때 나는 뽕뽕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의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어요.’

“나는 혼수 상태로 빠져 들 때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다만 기억이 안날 따름입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던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의식을 잃으면서 그 의사에게 몹시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나는 살아 남을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기 전에 열까지 세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열까지 셀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입니다. 나는 다섯이나 여섯까지 세고 정신을 잃어 가면서 ‘열까지 셀 테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서도 피터는 차츰 회복되어 갔다. 출혈을 막기 위하여 팔다리를 묶이고 붕대로 눈을 감긴 그에게 의사는 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사고로 그는 팔과 다리가 하나씩 탈구 되었고, 갈비뼈 세 대와 7내지 8개의 손가락과 턱뼈가 부러졌다. 충격도 받았다. 피부의 50퍼센트가 화상을 입어 못쓰게 되었으며, 나머지 40퍼센트도 1도 화상과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는 중에 피터는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다. 휘발유가 그의 눈에 튀었는데, 과연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의사가 자리를 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심각한 의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지?’ 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의 주의를 끌었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 눈, 내 눈, 내 눈’이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내 팔을 꼭 잡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내 말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무언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으며 나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휘발유가
엔진 뚜껑 위로 튀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바로 내 앞에
끼여져서
나와 자동차 안을 차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피터는 몇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사실상 그는 1년 동안을 장기 입원하였으며 또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을 드나들었다. 첫번째 해야 할 수술에는 눈에 난 상처의 딱지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터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있는 동안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될 순간이 다음날 아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가 되면 붕대를 풀고 눈을 검사하게 될 것이다.

피터는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어떤 일이 닥칠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내 눈에서 붕대를 벗기는 장면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될까! 반면에 장님이 된다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피터는 붕대가 감긴 손으로 어색하게 그의 눈을 짚 붕대를 떼어 내기 시작했다. 그는 가까스로 침대 옆에 있는 팬

을 가슴까지 잡아당겼다. 그는 머리 위의 불빛을 눈쪽으로 반사시켜 보려고 했다. 것이었다. 그가 스윗치를 켜자 그의 눈에는 빛이 보였다. 그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이 침침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그는 한번 더 반짝이는 금속 팬을 들어 올렸다.

“그때 내가 느꼈던 모든 감격은 금속 팬에 비친 무서운 얼굴로 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한쪽 귀와 양쪽 눈 까풀이 없어지고 얼굴이 모두 일그러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와 입의 형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보게 된다는 흥분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피터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여 밤새도록 동정심 많은 간호원과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가? 일단 퇴원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물건을 사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 팬스 파티에 간다면? 어떤 소녀와 춤추기를 원한다면? 만일 그녀를 좋아한다면?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다면? 갑자기 그는 웃기 시작했다. 간호원은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 알고자 했다.

“갑자기 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거울을 보고 내 외모를 걱정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만 16세가 되었을 때 무도회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으로 턱시도우(약식 야회복)를 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막 16세로 접어들었으며 특별히 한 소녀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한 소녀와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나는 늦지 않기 위해 오후 2시부터 턱시도우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막 나비 넥타이를 매다가 턱에 난 조그만 흉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필 지금 이럴 수가! 나는 거울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턱 왼쪽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하필 오늘 생겼을까? 내일쯤 생겼으면 좋았을 걸. 오늘날 아니면 아무 날이라도 괜찮겠는데. 사진도 찍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붉은 색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가서 그녀가 내 왼쪽 얼굴을 보지 못하게 그녀의 왼쪽에 자리잡았습니다. 무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즐픈 그 소녀가 나에게 어디를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모습에서 몹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왼편에 앉아서 그녀에게 내 얼굴의 흉터를 안 보이게 하려고 10인용의 큰 식탁에 앉자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바로 내 목숨 자체를 위하여 또한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

그들은 나에게
 한쪽 귀와
 양쪽 눈까풀이 없어지고
 얼굴이
 모두
 일그러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코와 입의 형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 나는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조그마한 흉터에 대하여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가 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피터는 입원해 있는 동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퇴원하려면 아직 길고도 피로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몇 명의 훌륭한 친구들이 그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 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중에 특별한 사람은 그의 와드의 로렌스 오번 형제였다. 그는 자주 피터를 찾아와 목표를 선정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처음에 피터는 그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오번 형제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이지 외모

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주었다.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수록 비웃는 태도로 ‘좋아요, 그러면 형제님도 화상을 입고 이리 오시지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감은 붕대 때문에 작게 들리기는 했으나 그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하고는 곧 후회했습니다. 그는 ‘피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가 정말로 나를 아들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무엇이든지 그가 부탁하는 대로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 피터는 수술할 때마다 께매는 바늘 수를 세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2천 바늘이 되기 직전에 제발 그만 세어 달라고 했다.

피터는 또다른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주사맞는 수를 세는 것이었다.

1252대까지 세고 세기를 마쳤다. 그는 그 병원에서 가장 열성적인 환자가 되겠다는 세번째 목표를 세웠다. 피터는 이 따금 세상에 대하여 노여움이 생겼으나 이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가 퇴원할 때 병원 직원들은 그에게 그들의 치료에 가장 열성껏 협조한 사람이라는 글이 담긴 소패를 증정했다.

또 한 사람의 친구는 그의 와드 소녀로서, 학교가 끝나면 들러서 책을 읽어 주었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그들은 별로 특별히 친하지 않았으나 지금 그녀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그를 도와 주

었다. 그는 만약에 그들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면 자기가 병원에 와서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녀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있었다면? 이런 무서운 생각이 늘 마음에 스쳤습니다. 내가 그녀 옆에 있어 주겠는가? 내가 나쁜 젊은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와 의복을 살 돈은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울었던 것은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녀 옆에 있지 않았으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었으므로 이처럼 큰 맹세를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열성적인 환자가 되어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퇴원해서 걸고,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여 그녀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퇴원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동안 나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고 너무 자신을 의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대한 교훈, 즉 진실로 속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차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내부에서 울어나옵니다.”

피터는 퇴원한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가서 성형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외사촌 형제 자매들과 생활하며 그의 한 가지 큰 소망인 정상적이 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터는 병원의 안전 지대에 남겨졌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닥친 일을 알고 있었으며 그를 그 병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가 사고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식품점에 갔을 때였다. 그는 퇴원했다는 사실로 기분이 좋았으며 원기도 차츰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몇 가지 물건을 사려고 식품점으로 갔다. 시간이 오후 5시였기 때문에 계산하는 점원들은 모두 바빴다.

“나는 어떤 부인의 뒤에서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이 계산할 순서가 되자 두 소년이 그 부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곁으로 다가선 한 소년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보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비명을 지르고 나서 ‘괴물이야, 괴물이야.’ 라고 고함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곁을 떠나 복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함지르나 하고 둘러보다가 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자기 식품을 떨어뜨리고 어린 아이의 뒤를 따라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비명 소리가 나자 계산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몸을 돌려 쳐다보고 내가 상점 중앙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구! 저런! 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내 귀

에도 들리게 수근거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내 창자를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피터는 용모를 교정하고 그 사고로 인한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28가지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 즈음에 그의 감독이 그에게 와서 만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즉시 나의 한 가지 큰 소망이 마음을 스쳤으나 전혀 불가능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 말하지 않고 바로 ‘그러면 준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독님,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재정 상태와 내가 얼마나 빚지고 있으며 아직 내 다리가 낫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수술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합니다.’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감독은 피터에게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가르치라고 했으며 여러 번 어려울 때가 있었으나, 피터는 복음 교리반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경험을 했다. 그는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여러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몇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자기 장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몇몇 친구가 와서 그날 밤에 함께 스테이크 무도회에 가자고 말했다. 그는 가고 싶었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섯 시간이나 피터를 설득시켜 무도회에 가게 했다.

“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모든 젊은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으며 웃걸이 너머로 몇몇 소녀를 보았습니다.

몇 소녀가 내가 듣는 것도 모르고 ‘저 사람 좀 봐. 그가 나에게서 파트너 신청 안했으면 좋겠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참한 느낌이 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밴드 옆에 있는 젊은이들 뒤에 빈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사방 60센티미터의 의자판을 내 영토로 삼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친구들이 그에게 춤추기를 권고했다. 그들은 그를 홀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 휴식 시간에 그는 밴드가 연주하기 시작하는 즉시 한 소녀에게 춤을 신청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내 맹세를 생각하고 내 용모는 생각하지 않고 춤추러 나갔습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 밤은 계속해서 비겁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한 소녀의 뒤로 다가갔다. 파트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대자 그녀는 돌아서서 비명을 질렀다. 당황한 그녀는 홀을 가로질러 사람을 헤치며 달아났다. 식품점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밴드가 음악을 멈추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멈추어서 쳐다보았다.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 했으며 무도회는 다시 계속되었다.

“나는 고함지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작은 음성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피터, 지금 도망가면 안돼.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도망다니게 될

거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길이 다시 홀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소녀에게 파트너 신청하러 가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힘에 끌렸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내 위에 서서 '뭘 하고 있지? 네 자리로 돌아가야 해. 너는 멧집이 좋은 권투 선수라도 된다는 말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홀을 건너서 걸어가면서 내내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라고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이 작은 음성이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음성은 '피터, 계속해서 파트너 신청을 해야 해. 돌아서서 도망가지마. 그렇게 하면 영원히 도망가게 돼.'"

그는 그날 밤에 무용이 시작될 때마다 파트너 신청을 했다. 그날 밤 모든 소녀 가운데 두 사람만 응했으므로 그는 크게 낙담했다. 그날 밤 무릎꿇고 기도하면서 피터는 처절한 괴로움을 맛보았다.

"사람들의 모든 압박,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빨리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아직 계속해야 하는 수많은 수술 등이 모두 함께 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내 눈을 고쳐 주고 눈꺼풀을 재생시켜 주고 정상적인 입과 코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느낌이 들자 나는 분노에 싸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받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성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

는 화평과 평안을 축복받았으며 그때부터 그 축복이 늘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늘 정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초 위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춘 피터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었다. 피터는 신청서를 내고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특별한 접견을 한 다음 노던 캘리포니아 선교부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까지 피터는 눈꺼풀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의 눈위로 첼멘상처를 숨기려고 항상 진한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다. 그는 선교사 접견하러 갈 때 색안경을 벗은 이후로는 다시 안경을 끼지 않았다. 나중에 수술하여 그의 눈꺼풀 문제는 해결되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그가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되도록 격려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피터는 선교 사업을 끝내고 돌아와서 곧 일상 직장 생활과 지속적인 교정 수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가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때 그는 스테이크 선교부에

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스테이크 선교부장 서기인 유타주 투엘레에 사는 마조리 클레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피터는 자기 친구들을 그녀에게 소개시켜 데이트하게 했다. 마침내 그런 데이트가 너무 많이 계속되자 마조리는 더 이상 데이트하도록 소개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피터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우정에 기초를 둔 이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하여 두 사람은 결혼했다.

“마조리는 맨 처음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화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색다르게 보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나는 마조리가 내부에서 발견한 나와는 달리 외모를 보고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이 무척 멋지다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나의 애인일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야말로 내가 늘 기도하던 대로 나의 속마음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여성입니다. 나의 외모는 불품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피터 제프슨은 미래에 성취할 것을 모두 파피시켜 버릴 수도 있었을 사고를 당하고도 역경을 이겨 내어 사업가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성공했다. 지금 그는 자기 소유의 보험 및 투자 대행업소를 갖고 있으며 본부 청남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고, 슬하에는 세 자녀—두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다.

피터는 병원에 누워서 만 19세의 청

년으로서 자기 미래를 그려 보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자문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이겨 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눈의 봉대를 풀기 전에 친구들이 읽어 준 목표를 정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책으로부터 감동받았다. 그는 만일 자신이 생명 보험 외판 책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1)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훌륭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2)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3) 한 가지 분야에서 자신의 신뢰도와 능력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피터는 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보험 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59개의 회사를 찾아갔으나 아무 곳에도 취직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어떤 보험 회사의 기획 관리자 자리를 얻었다. 그것은 소규모로 시작된 것이었다. 피터는 끈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학교에 다님으로써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다.

피터는 결혼할 때까지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부채는 모두 갚았으나 자신감 이외에는 아무 재산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0년 동안에 결단력과 수양으로 무에서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쌓아나갔다.

지금 피터와 마조리와 그 자녀들은 모두 자기 목표를 향하여 진보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너무 어려서 글을 못 쓸 때에는 마조리가 그들의 일지를 대신 써 주었다.

호리호리한 체격의 피터는 금년 목표는 3킬로미터를 16분에 달리는 것이라

“자신의 문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는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에 왔습니다.

아름다움은 구세주와 가까이 하여

구원을 이루는 데서 생깁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

피터는 사무실 의자에 뒤로 기대고 앉아서 자기 소유의 사무소 창 밖을 내다보면서 자신감에 넘쳐 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절망을 극복해 내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때가 흔히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이런 일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그로 인해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자신을 심각하게 의식하면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지루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게 하는 버릇에 빠져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한 면으로 반응을 보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뚱뚱하거나 여위었거나 크고 이상한 치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쁜 소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여자도 마음속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가 아

니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피터는 그 사건이 안 됐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피터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문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는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에 왔습니다. 아름다움은 구세주와 가까이 하여 구원을 이루는 데서 생깁니다.”

이제 피터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곧 편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을 가진 참으로 멋진 사람이다. 그가 내부에서 개발한 것은 외부의 어떤 상처에 대한 것보다도 더 분명하다. 그 추악한 느낌이 사라질 수 있게 기도한 그 옛날 어느 날 밤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역경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충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터는 이렇게 말한다. “예, 만일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을 다스리는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그대로 사십시오. 성공은 환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사십시오.” *

김볼 대관장님이 병자 축복을 강조하심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등을 믿는다.”(신앙개조 제 7 조) 구세주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개종시키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마가복음 16 : 15—18)

주님은 신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곳에 권능의 표적이 나타나리라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영원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

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야고보서 5 : 14—16)

침례 요한은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으면서 주님에게 사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태복음 11 : 3)라고 여쭙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태복음 11 : 4—5)

주님께서서는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누가복음 10 : 9)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칠십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기뻐 말씀드리자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누가복음 10:18-20)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 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마가복음 6:13)

병자 축복이나 축복에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먼 옛날부터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시현을 받았을 때 베게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인수할 때도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실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에 기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5절)

병 고칠 때 기름을 사용한 것은 많이 언급되었으나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름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런 풍습과 관습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축복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중에 주어졌습니다.

집행 그 자체는 기름 부음과 인봉의 두 부분으로 된 하나의 의식입니다. 장로 한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의 머리, 가능하다면 머리의 정수리 가까이 소량의 기름을 붓고—신체의 맨 부분에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주님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도록 기름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인봉은 두 사람 이상이 행하며 그중 한 사람이 역

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인봉하고 적절한 축복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기름이 없거나 형제 두 사람이 없거나 병자가 최근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럴 때는 한 사람 이상의 장로가 똑같이 주님의 이름과 벨기세택 신권의 권능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는 적합하게 보이는 축복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 말씀을 합니다.

또한 병자 축복과는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 누구나 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같은 의미에서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행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이며 축복이나 병자 축복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거룩한 의식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는 몇 주 동안 매일 장로들이 와서 축복 의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자주 축복 의식을 받는 것은 신앙의 부족 또는 병자가 신앙을 발전시킬 책임을 자신보다는 장로에게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훌륭한 여성인 루시 그랜트 캐넌 자매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자매는 아리조나에 있는 딸을 방문하던 중 중병에 걸렸습니다. 즉시 우리 장로들이 부름을 받고 그녀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에게 한 번 더 축복받고 싶으냐고 묻자 “아니에요. 나는 기름 부음과 축복 의식을 받았어요. 의식은 이미 집행되었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 : 21-22)

어요. 이제 신앙을 통하여 축복을 간구할 사람은 나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최근에 의식을 받은 사람이 좀더 축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을 붓지 않고 축복해 줍니다.

신앙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병자나 그의 가족이 그의 식을 집행하는 형제의 병 고치는 은사나 그들의 신권의 권세에 완전히 의지하여 낫기를 바라는 때가 흔히 있으나 사실 축복받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소유한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큰 신앙과 이미 증명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과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택하여 축복받고 싶어하는 까닭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병자가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개인의 신앙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 : 22)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구속주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마태복음 28 : 18) 받으셨으나 그가 늘 반복하신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 : 22)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9 : 29 참조)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집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기 종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대”(마태복음 8 : 8)

그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를 자신의 군대 권력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마태복음 8 : 10, 13)

12년 동안 병고를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걸음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순간부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 : 21-22)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계베타사렛 땅에서도 모든 병든 사람들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다 나음을”(마태복음 14 : 36) 얻었습니다.

소경인 바디매오도 주님께 가까이 가

려고 끈기있게 신앙을 갖고 노력한 끝에 시력을 찾았습니다. 이때에도 그 여리고 사람이 시력을 찾자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 : 46-52 참조) 그중 한 사람은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마태복음 9 : 29) 주님은 또 다른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마태복음 9 : 28)고 말씀하신 뒤 그들의 눈을 만지자 그들의 눈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다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설새없이 축복을 부탁받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의로운 생활과 신앙과 헌신을 보여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장로들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와드, 선교부 역원만이 병 고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포함하여 교회의 수많은 형제들이 축복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 의식이나 축복은 축복받는 사람의 커다란 신앙과 연합하여 극적인 병 고침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고 경험이 없는 선교사들의 집행을 통하여 생길 수없이 많은 훌륭한 병 고침에 의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의아심을 갖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이 가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선지자 시대와 구세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병고침을 포함하여 영적인 시현이 없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무한한 병고침이

축복은
축복받는 사람의
커다란 신앙과
연합하여
극적인 병 고침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있으며 똑같이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성역과 그 다음 시기에 관한 종교적인 역사는 소수의 짧은 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한복음 21 : 25)

수년 동안의 역사가 압축되었으므로 가장 극적인 병 고침만 기록하게 되었으며, 기적은 모두 극적이고 간구한 사람은 모두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에도 축복이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은 경우나 두통이 멈추었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경우, 고통이 사라진 일등과 같은 가능한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만일 우리 시대의 모든 기적을 기록한다면 도서관의 서가가 모자랄 것입니다.

나는 1955년에 유럽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 수백 명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직접 행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질

병에 걸려, 전문 의료진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고 병자 축복을 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뒤에 똑같은 의사가 새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와서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 수술이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광신적인 해석이나 상상력에 의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례가 상상에 의한 것이나 잘못 생각한 것이나 공상에 의한 것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수술이 취소된 사례는 수많은 지역 출신의 선교사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수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부터 각각 다른 상황의 일을 집이나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즉각적인 병고침도 무수히 많으며 그 범위는 시각, 청각, 지체 불구, 내부 기관, 피부, 뼈 및 신체의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기술과 지식의 축적에 대하여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사와 병원의 공으로 돌린 수많은 병고침은 신권과 기도를 통한 주님의 병고침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한 것은 크건 작건 그 일에 공헌한 것에 불과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너무 쉽사리 의사의 공으로 돌립니다.

어떤 의사도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생 능력을 사용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뼈를 바로잡고 병균을 죽이고 봉

합실로 상처를 깨매고 숙련된 손으로 육신을 회복하고 다시 봉할 수는 있으나 아무도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기 내부에 하나님이 주신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권과 기도를 통하여 육신이 치유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도움을 주도록 훈련받은 훌륭한 사람들의 인술과 인내력과 이해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사에게 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 나중에 장로에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들은 할 수 있는 의료 조치가 다 행해진 후에 병자 축복하러 병원으로 불러가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가 회복되면 그는 회복된 것을 의료진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러다가 일단 죽으면 왜 신권이 그를 살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병을 즉시 고치는 것과 점차적으로 고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아시며 그 병이 수술과 치료를 받든 안받든 그 병고침은 결국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오늘날의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분은 태초부터 육신을 다시 형성하고 재생하고 고치는 방법을 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가 축복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실망할 뿐 아니라 신앙까지 약해지는 일이 흔히 있으며 수많은 기도와 오래 금식했을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른 경륜의 시대에도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두 병고침을 받지는 않았다

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들도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여쭙었습니다. 주님은 그리 비난하시듯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 17 : 19, 21)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고 죽은 자를 살린 일까지 기록되었으나,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고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구세주까지도 그들을 모두 고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신앙이 적은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는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마태복음 13 : 58)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병 고침을 받게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병 고침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진척이 있었으며 사망 통계 자료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영아가 점점 더 많이 살아 남으며 더 많은 산모가 무사히 아기를 낳으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과거보다 오래 살고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업적에 공헌한 근면한 모든 학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며 부활이 없으면 불사불멸과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는 방식은 침대에서 병사하는 것으로부터 차도나 보도나 계곡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합당한 방법으로 죽음을 연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매우 연로한 사람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축복하는 것도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운명인지 또는 언제 다음 세계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며 합당하다면 고쳐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정된 사망 시기가 오면 병 고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연기된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숨을 연장해 주시도록 간구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는 15년을 더 허용받고 그후에 다음 세계로 갔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도 탁월한 신앙을 통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도록 허용된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주님께 연장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경박한 때와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탁드리는 온당치 못한 순간이 닥칠 때가 흔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연장시킴으로써 부당하게 고통받는 시간과 때로는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합하지 않게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축복은 합

나는
 이 교회에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한 것이 됩니다. 육신은 때로 그런 불합리한 요구로 고침을 받게 된다 해도 마음은 상처받은 채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육신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만큼 위대하지만 주님에게 그 가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는 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능의 극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그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너무 일찍 죽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감상적이 되고 때로는 광적이 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광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병 고침과 관련된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낫게 되어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6: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적지 않습니까?

한번은 내가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 3일 동안 굉장히 앓은 후에야 마침내 동반자인 해롤드 비 리 형제에게 내가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수면제 한 알을 주고 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는 3일 동안이나 밤새도록 앓으면서 거의 한번도 잠을 이루지 못했으나(이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축복을 받는 순간 즉시 잠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부끄럽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맨 처음 생각한 것이 그 약의 효험에 대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약의 효력이 다 떨어졌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는 그 통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릎을 꿇고 주님보다는 약의 효험으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그 고통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여! “아무아무 형제는 낫지 않았어요.” “아무아무 자매는 나왔지만 오래 걸렸어요.” “아무아무 형제는 어쨌든 낫게 되어 있었어요.”

나는 몇 년 전에 수술에 들어가면서 의사나 간호원이 내 주위에 서서 기다릴 때 아직 의식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 전문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저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상달되어 그의 손이 침착해지고 인도받았으며, 그의 판단력이 증진되고 주님의

축복의 결과로 병 고침을 받고, 내 목소리는 다시 만족할 만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장로들이 병자 축복을 한 기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말 같이 들렸으며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는 칠십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

나는 주님이 언짢아 하셔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의 권세를 줄이실까봐 내가 관련된 기적을 자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며 그는 그에 대하여 합당하게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는 신권에 의해서만 나타납니다. 만일 장로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안수해 준 사람에 대하여 결코 언급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명예를 취하려는 유혹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나 모든 명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 구세주의 생활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병을 고쳐 주시면서 자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자비를 구하는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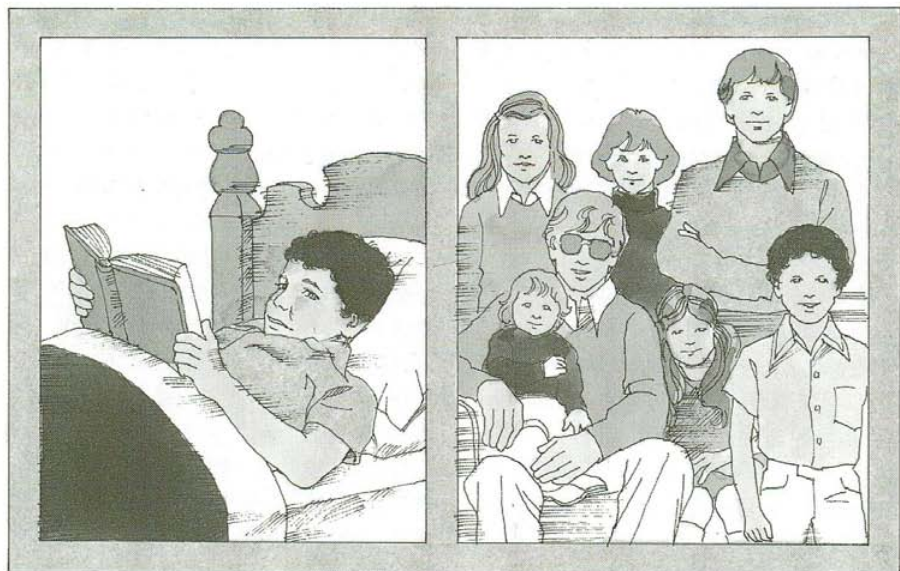
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마 8:3-4)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때로는 인간의 의술이 개입되기도 하고 개입되지 않기도 하는 가운데 병 고침을 받거나 차도가 있거나 회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즉 음식 조절, 휴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간단한 약초 식물 섭취, 특히 사소한 질병에는 상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신뢰하는 장로, 가정 복음 교사, 이웃이나 친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될 때가 흔히 있으며 수많은 병 고침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는 훌륭하게 도와 줄 수 있는 숙련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몹시 불안해 하고 겁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수술받기 전, 밤에 왕진은 의사가 신전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롭고 신앙이 있는 숙련된 사람이 자신을 다루며 주님이 지켜 보신다는 것은 깨닫고 안심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병 고침에 있어서 회의론자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신성합니다. 수많은 책으로도 이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고도 복잡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이면서도 순간적입니다. 이것은 실존합니다. *



타인과 다른 것을 기쁨함

산드라 스카우슨

에릭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으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좋은지 어떤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잠이 깨면 자주 이에 대해 생각하며 형제들을 깨우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때로는 침대 옆 불을 켜고 독서했다. 또 어떤 때는 어둠 속에 누워서 자동차나 트럭이 고속 도로를 달리는 소리나 닭 우는 소리를 들었

다. 그리고는 그 자동차나 닭이 얼마나 멀리 있으며 낮에 놀 때는 한 번도 주목해 본 일이 없는 그런 것을 어찌서 아침에는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때로는 자신의 붉은 곱슬머리에 대하여 생각했으며 다른 아이들이 “불난 것 같은 빨강 머리”라고 부르는 것과 왜 나는 친구인 앤디 로저스처럼 독방을 갖지 못하고 세 형제와 방을 함께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럴 때는 자신이 남다른 것이 좋지 않았다.

에릭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은 빨강 머리카락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은 한두 사람의 형제밖에 없는데 7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만도 아니었다.

에릭은 학교에 가면 자기 방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어린이였고 이곳에서는 일요일에 떠들썩한 놀이를 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어린이였다.

그는 대체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좀 다른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2주일만 있으면 생일이 되고 8살이 될 것이다. 때때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칩레받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곤 했다. 그는 흰옷을 입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해 보려 했다. 그는 아버지가 물 가운데 서서 기다리며 에릭이 잡을 수 있게 손을 내밀고 제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몹시 기분이 좋았다.

하루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앤디에게 칩레받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친구에게 “너는 8살이 되면 칩레받니?”라고 물었다.

앤디는 “아니, 그런 것은 잘 몰라.”

라고 말했다. 에릭은 나는 역시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앤디가 “너는 8살이 되면 칩레받을거니?”라고 물었다.

에릭은 잠시 앤디를 쳐다보고는 앤디는 좋은 친구니까 그 이야기를 해도 놀리지 않을거야 라고 생각했다.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2주일 있으면 8번째 생일이 돼. 그때가 되면 칩레받을 나이가 되거든.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자 에릭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내 칩레식에 오지 않겠니? 우리 아빠가 칩레주실거야. 나는 흰옷을 입고 아빠와 함께 맨 앞줄에 앉을거야. 너도 올 수 있고 너의 아빠도 함께 와도 돼.”

마침내 에릭이 칩레받는 날이 되자 그의 가족이 모두 함께 갔다. 또한 앤디와 그의 아빠인 앤디 로저스씨도 함께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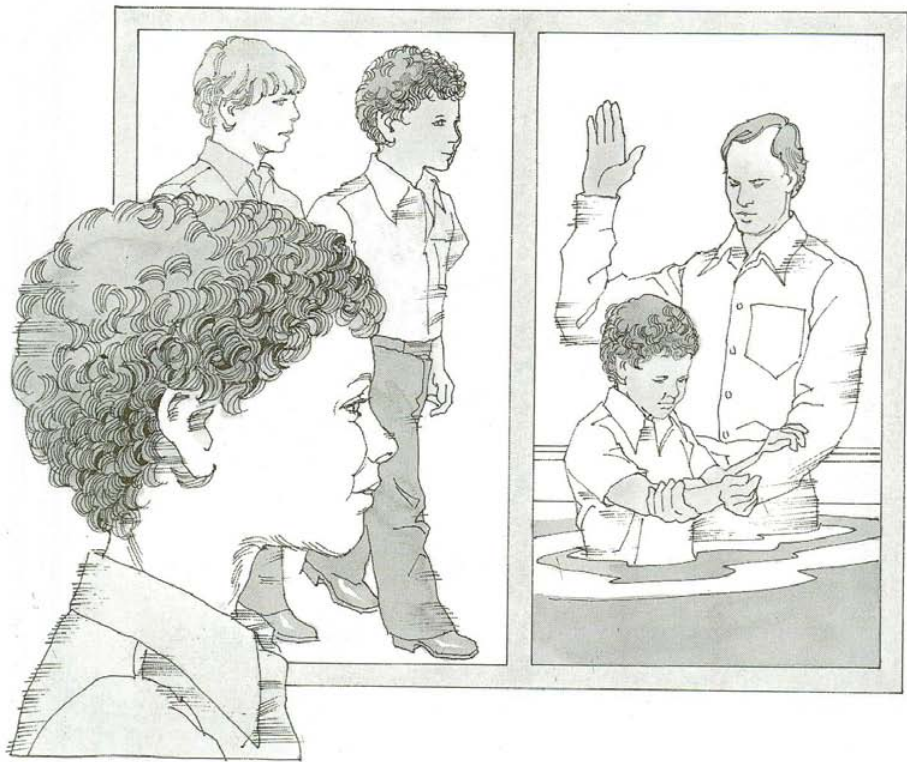
칩레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간단한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 먼저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님이 칩레받으신 것과 그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에릭은 예수님도 다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크게 위안이 되었다.

칩레 시간이 되자 모든 것은 에릭이 생각했던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빠가 힘센 손을 뻗쳐 그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허리까지 시원한 물이 부드럽게 감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동안 에릭은 아빠의 음성과 아빠의 따뜻한 손길과 그를 감싸고 있는 시원한 물의 감

“너는 8살이 되면 침례받니?”



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침례받고 아빠와 함께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에릭은 모든 사람과 악수했으며 어머니가 꼭 껴안아 주셨다. 그 다음에 에릭과 아빠는 함께 방 뒤로 가서 앤디와 로저스씨를 만났으며 그들도 모두 기쁜 표정이었다. 아빠는 로저스씨와 악수하면서 “프랭크, 와 줘서 고맙네.”라고 말씀하셨다.

로저스씨는 잠시 가만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사람은 나일세.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 여기에 와서 보게 된 것이 기쁘네.”

그러고 나서 그는 에릭을 향하여 악수했다.

그리고 에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앤디와 그의 아버지에게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에릭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다는 것을 알았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3-1970

하워드 보너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1951년 교회 대관장이 된 지 6개월 후에 태버나클에 모인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현의 참됨을 아주 쉽게 믿

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타주의 헨츠 빌에 있는 농장에서 어릴 때 경험한 것을 뚜렷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계속했다. “아주 어릴 때 살았던 집에서 밤에 물 시 무서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셨던지 어떤 임무 때문에 집에 안 계셨으며……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그때 집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방에 계셨습니다. 토머스 이 맥케이(동생)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몹시 무서움을 느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기도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시도해 보기조차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가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이 분명히 ‘겁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직접적인 응답이었으며 나는 밤에 잠 자는 동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

언제나 훌륭한 학생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약관 20세에 헌즈빌 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민첩했으며 나중에는 유타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1897년에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평생 동안 교육자로 일했으며 사생활에서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행정가로서 또한 교사로서 일했다. 그는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했으며 훌륭한 문학 작품에 심취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맥케이 대관장의 조상의 고향 출신인 스코틀랜드 시인인 로버트 번즈(1759—1796)의 시를 좋아했다.

맥케이 대관장은 64년 동안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임직하는 동안 품위있고 성자답게 평생 동안 그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력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에게 확신과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대관장으로 일하는 동안 150만 킬로미터나 여행했으며 이 시기는 교회가 전세계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 “바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그가 항상 행복을 느낀 비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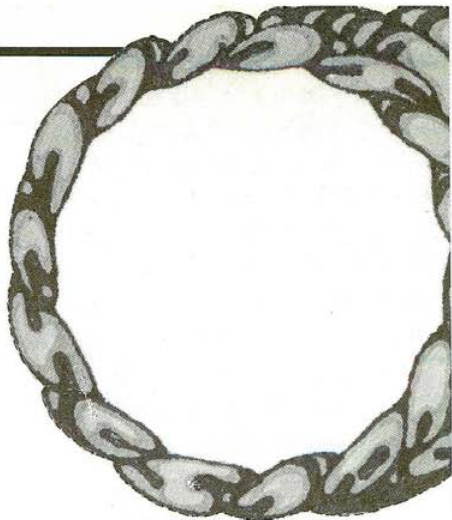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잘 기억되고 있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특히 어린이를 사랑했다. 또한 어린이들도 그를 좋아하고 그의 곁에 있으면 기뻐했다. 그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사였으며 64년간 함께 산 아내에 대해서는 예절과 온화함의 훌륭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는 90세로 접어들어서도 시간이 생기면 어렸을 때 살던 헌즈빌로 가서 그의 애마인 소니 보이를 타고 낮익은 벌판을 달리기를 좋아했다. *



다 함께 나누는 시간

패트 그레함



네가 받은 복을 도

풍요의 빨(코누코피아)은 풍요의 상징이다. 그것은 대개 과일과 꽃과 곡식이 넘쳐 흐르게 가득 차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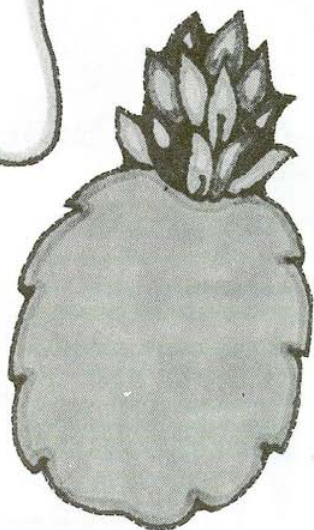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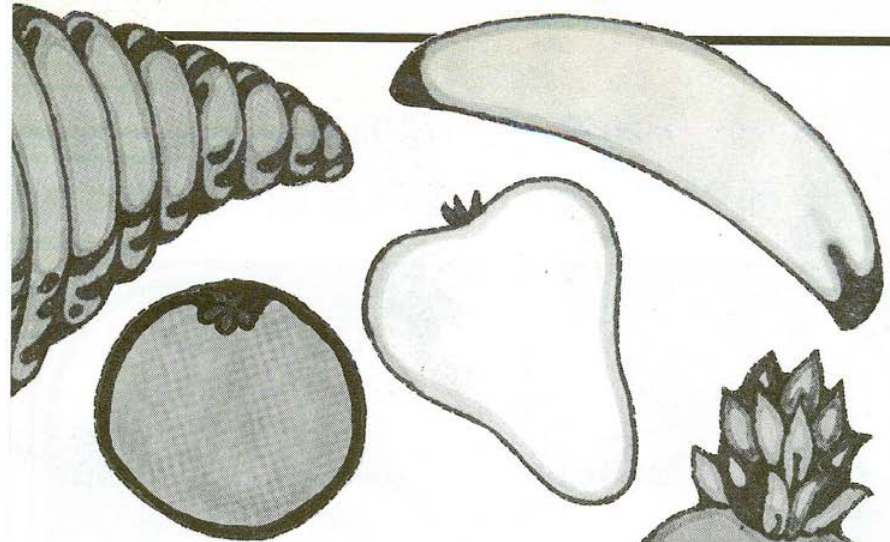
풍요의 빨을 오려 내서 마분지나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가벼운 종이나 마분지에 과일 모양을 그려서 오려 낸다. 과일 위에 자신이 받은 축복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각 축복을 풍요의 빨 위나 주변에 붙이면서 “나는 _____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다. 각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림을 완성했으면 가족과 함께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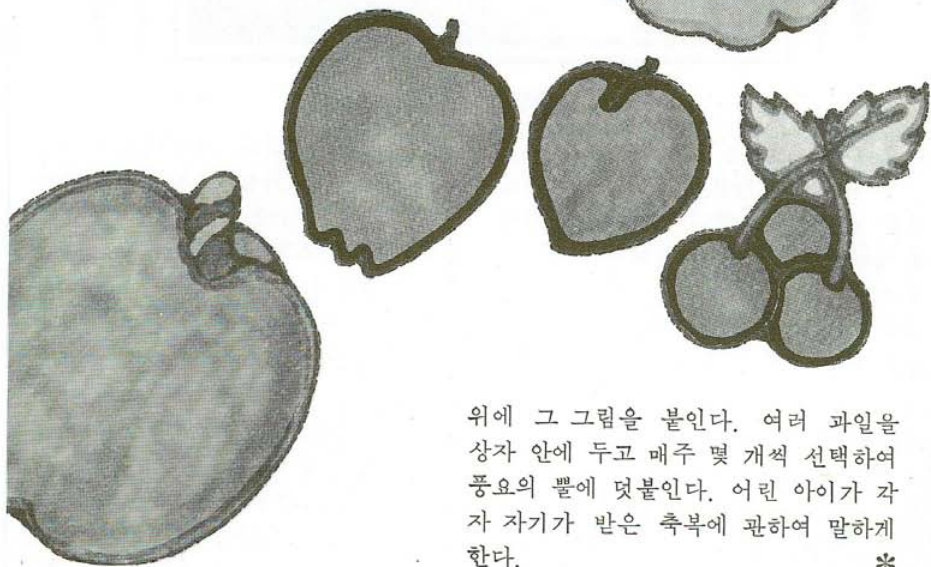
을 할 수 있다. 모두 눈을 감게 하고 그림 한 개를 빼낸다. 어떤 축복이 없어졌는지 맞춰 보게 한다. 그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다 없어질 때까지 이 게임을 계속한다.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아이디어 마분지로 커다란 풍요의 빨을 만들고 가능하면 투명한 유리 종이에 씨워 과일 모형을 테이프를 붙여 흉터가 남지 않고 떼어 낼 수 있게 한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그리고 색칠하게 한다. 그리고는 오려 내어 과일 모양으로 오려 낸 색칠한 종이



두 세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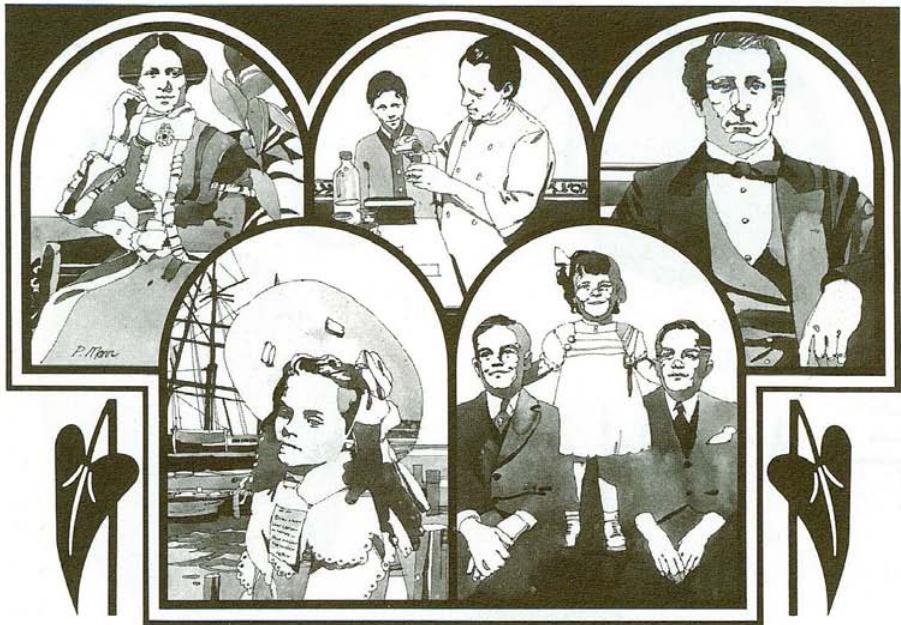


위에 그 그림을 붙인다. 여러 과일을 상자 안에 두고 매주 몇 개씩 선택하여 풍요의 빨에 덧붙인다. 어린 아이가 각자 자기가 받은 축복에 관하여 말하게 한다. *



친구가 친구에게

제임즈 에이 패러모어 장로



줄린 메레디스

“우 리 어머니는 특별한 분입니다.”
 패러모어 장로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찬사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일생 동안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강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유능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자녀를 갖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섯 자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참으로 소중한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따를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특별하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치과 기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란히 앉아 일했으며 나는 그의 지시를 받고 일하여 완전히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이 기술에 관련된 것을 보여 주고 말해 주시기를 5년간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군에 갔을 때 그들은 나의 기술을 알게 되

었습니다. 나는 불과 18세밖에 안되었을 때 기본 훈련에서 제외되어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치과 실험실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패러모어 장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의 패러모어 계통에는 훌륭한 조상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만 8세에 혼자 덴마크를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친이 할머니의 목에 유타주에 있는 어떤 장소의 주소를 적은 목걸이를 걸어 주고 배에 태웠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 그녀를 만나기로 되어 있던 몇 명의 물론 선교사들이 유타주의 이프레이임으로 가는 기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덟 살밖에 안된 어린이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할머니의 모친은 그 일을 참된 교회가 전해줄 있는 곳으로 딸을 보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패러모어 장로는 만 8세의 어린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전에 감독으로서 최소한 80명의 어린이를 접견하고 그들이 침례받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접견하는 동안 그 어린이가 침례받을 준비가 안되었다고 생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8세는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고 어린이는 이 연령이 되면 참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물론 그들은 모든 교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합당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본능적으로 옳은 것을 압니다. 그들이 과연 올바른 일을 행하는가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달려 있지만 8세 어린이는

올바른 것을 택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증거를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위대한 메시지는 그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갖게 되는 사랑하라는 마음을 평생 간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겸손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망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며 마음속의 문제를 풀어 버려 자신에게 해를 미친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장벽을 쌓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사랑에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관심과 염려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영이 있으면 신뢰심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복돋아 줍니다.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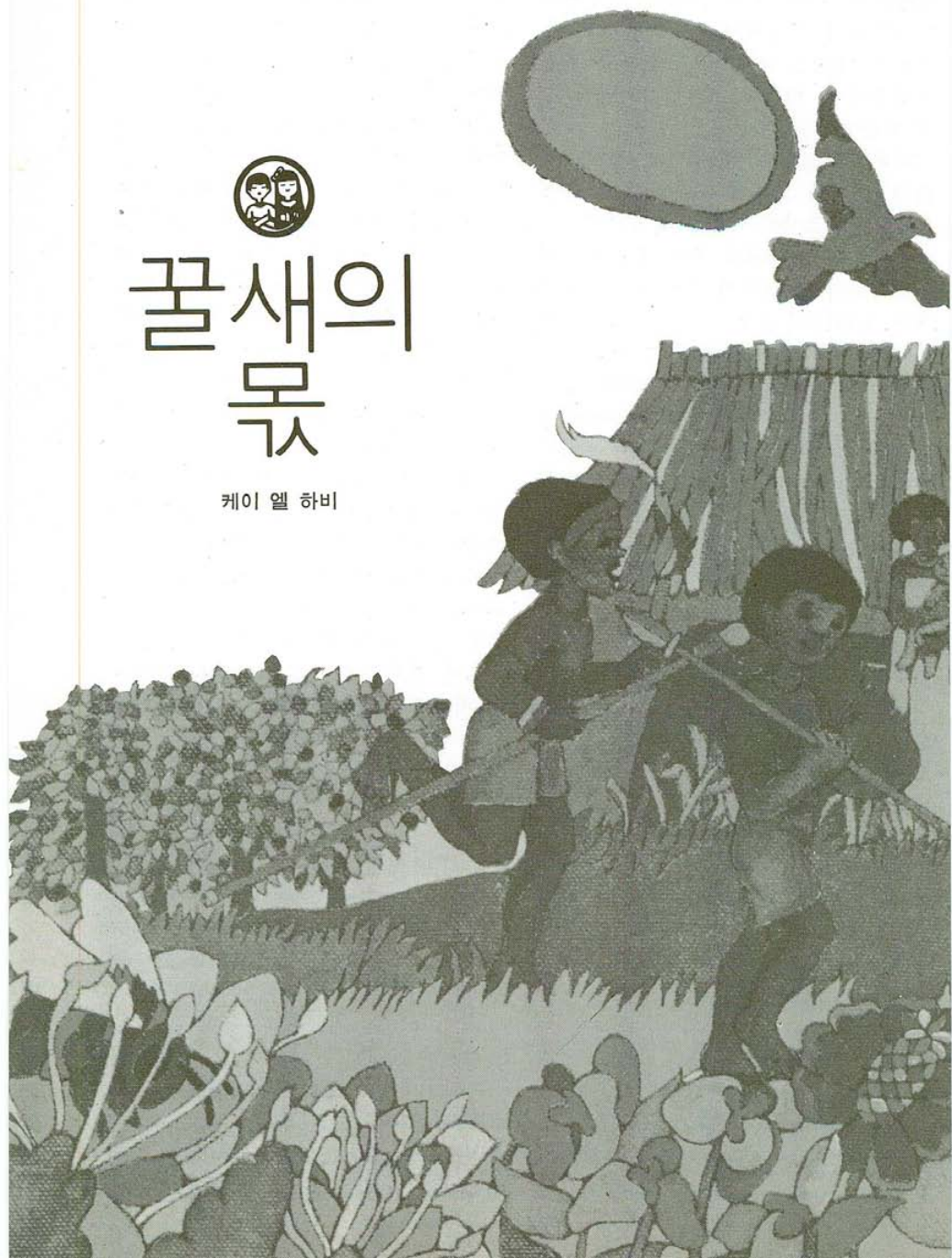
“만일 여러분이 단 한 가지 면에서 기억된다면 어떤 면에서 기억될까요? 굳건히 주님과 함께 하는 면에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정직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소중한 특성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면에서 기억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세주의 메시지이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사랑을 찾고 돌려주어야 한다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



꿀새의 뭉

케이 엘 하비



“저 것 봐! 꿀새야. 저걸 따라가면 꿀 있는 곳으로 가게 될거야.”라고 커마니가 동생인 수쿠에게 소리쳤다.

짧은 카키복을 입은 이 두 아프리카 소년은 마을 근처에서 사자 사냥 놀이를 하고 있었다.

“타이(빨리)! 타이”라고 수쿠가 외쳤다.

그들은 아세가이즈(창)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꿀을 모을 호리병 박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한 소년은 벌을 쫓아 내기 위하여 밥짓는 불에서 햇불을 붙였다.

그들이 벌새를 쫓아가자 어머니가 “반드시 새가 먹을 꿀을 좀 남겨 뒤라.”하 말씀하셨다.

“니더오(예).”라고 수쿠가 대답하고 고 커마니는 웃었다.

“새의 뒹으로 꿀을 남겨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가 너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리라는 옛날 이야기를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커마니가 비웃듯이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벌통으로부터 꿀을 다 따버린 아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렴. 새가 그를 인도하며 표범에게 잡아먹혔다고

“아이구 죽겠다!”

“그 옛날 이야기가 맞아.
그 새가 복수하는 거야.”

하잖아.”라고 수쿠가 말했다.

커마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창을 집어 들었다.

수쿠는 호리병을 들었고 커마니는 긴 막대에 기름을 바른 이끼 뭉치를 묶은 연기나는 햇불을 들었다.

그들이 가시나무가 간간히 있는 벨드트(목초지)를 걸어가는 동안 작은 회색의 새가 앞뒤로 날아다니며 마치 그들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그 새는 그들을 숲속으로 인도한 다음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사라졌다. 커마니는 앞에서 쫓아갔으나 수쿠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커마니가 찬성하지 않는데도 새 뒹으로 꿀을 남겨 두어야 하나?

“저것 봐. 저기 그 새가 간다. 동물들이 다니는 오래된 길로 가고 있어.”라고 커마니가 흥분해서 말했다.

수쿠가 커마니에게 다가가자 그 새는 이끼가 덮인 어떤 나뭇 가지에 앉아 있었다. 그 나무 줄기의 작은 구멍으로 벌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수쿠는 “저 새가 우리를 꿀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라고 말하면서 손뼉쳤다.

커마니가 아세가이즈(창)로 그 구멍을 쭈셨다. 썩은 나무가 떨어져 나가고 큰 구멍이 보였다. 그는 햇불을 그 안에 들이밀어 성난 벌을 쫓아 냈다.

수쿠는 그 구멍 가까이 있는 나뭇 가지를 잡으려고 커마니의 어깨 위에 섰다. 그는 나뭇 가지 위로 기어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꿀이 많이 있어.”라고 외치면서 좋아했다.

커마니도 나무로 올라가서 두 소년은 꼬챙이로 호리병에 꿀을 모았다. 그새는 애달르게 우짖으며 그들 위를 날아다녔다.

수쿠는 자기 손이 닿을 수 있는 데까

지 꿀을 다 모은 뒤에 나무에서 내려왔다. 커마니는 마지막까지 다 끊어 모은 다음에 꼬챙이를 활아 빨아 먹고는 땅으로 던져 버렸다.

그는 “바보 같은 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대답하게 말했다.

그 새는 나무에 앉았으나 꿀 날아올라 가서 그들을 불렀다.

커마니는 “저 새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 다른 벌통으로 데려다 줄 거야. 수쿠, 저 새가 우리를 위협한 곳으로 데리고 갈까봐 겁내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달려가면서 “용감하게 따라와.”라고 말했다.

수쿠는 망설였다. 우리는 밀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다. 새 몫으로 꿀을 남겨 두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 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못해 따라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우지끈하고 부서지는 소리와 겁에 질린 커마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그의 형이 나무에서 떨어진 무거운 나뭇 가지 밑에 다리가 늘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세가이(창)로 커마니의 다리에서 그 가지를 들어내려 했으나 창대가 부러졌다.

커마니는 “아이구 죽겠다!”라고 신음했다. “그 옛날 이야기가 맞아. 그 새가 복수하는 거야.”

수쿠는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께.”라고 말하며 커마니의 손에 아세가이(창)를 쥐어 주고는 도움을 청하려 달려갔다.

커마니는 고통에 못이겨 신음했다. 꿈쩍할 수도 없이 밀림 속에서 온갖 위협에 쌓인 채 혼자 있었다. 그는 절망

적으로 그 꿀새가 나를 죽이려고 표범을 데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그 새가 머리 위의 가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렸다. “표범을 찾으려 가지는 않았구나. 내 꿀통만 보고 있어.” 공포심이 좀 없어졌다.

커마니의 호롱박은 근처의 땅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세가이(창)로 그것을 찢어서 꿀을 약간 얻었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그 새가 내려와서 호박빛의 꿀을 먹기 시작했다.

커마니는 그것을 보면서 그의 교사인 앤드루 형제가 꿀벌은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그 생각을 하니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꿀 수쿠가 아버지와 구조대와 함께 왔다. 그들은 그 무거운 나뭇 가지를 커마니의 다리에서 들어내고 덩쿨로 들것을 만들어서 그를 집으로 운반했다.

앤드루 형제가 그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 주는 동안 커마니가 경위를 이야기했다. 앤드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새는 배가 고파서 너를 또 다른 꿀이 있는 나무로 데려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 새는 직접 꿀을 딸 수도 없는데 너는 아무것도 남겨 주지 않았거든. 그 안내해 주는 새가 자기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커마니는 부끄러워졌다. “수쿠는 꿀새에게 좀 남겨 주고 싶어했으나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그 작은 새가 나를 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면 욕심부리지 않겠어요. 언제나 새의 몫을 남겨 두겠어요.” *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게에도
 알게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진파하니라.
 (마태복음 9 : 27-31)

